

입장객 늘수록 적자 쌓이는 이상한 구조

월세로 짓고... 적자에 허덕 관광문화시설

<1> 전남 36곳 중 33곳 적자
광주일보, 최근 10년간 조성된
테마파크·전시관 등 전수 조사
5462억 투입해 年 170억 적자
68억 들인 보성 '판소리성지'
지난해 입장객 2081명 그쳐
신규 수입원 찾지 못하면
향후 시·군에 막대한 재정부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각 지자체가 '관광객 모시기'에 혈안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속에 외지인의 방문을 늘려 음식점, 숙박시설은 물론 지역 내 관광문화시설의 수익을 창출해 지역발전의 패를 지키기 위한다. 그러나 유사한 관광문화시설이 난립하고, 투자 대비 수익이 지나치게 낮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는 지난 10년간 들어선 전남도내 각 시·군의 테마파크, 전시관, 기념관 등 관광문화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전남은 지난해 3969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관광객 증가가 22개 시·군의 재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광주일보는 2006년 이후 건립·조성한 관광문화시설의 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익, 적자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료가 부실한 일부 시·군의 경우 취재를 통해 자료를 보완했다. <관련기사 3면>

분석결과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10년간 36개의 관광문화시설을 짓거나 꾸미면서 국비 포함 546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화순과 영암만 신규 시설이 없다고 밝혀졌다.

36개 시설 가운데 2015년 수익을 낸 시



전남도내 시·군들이 지난 10년간 곳곳에 캠핑장, 전망대, 전시관 등을 개관·개장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억여원의 적자를 본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전경.

설은 2012년부터 유료화한 담양 메타세콰이어길(4억원), 순천 드라마촬영장(1억5187만5000원), 순천 국민여가캠핑장(43만2000원)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3개 시설은 모두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시·군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지난해 적자 액수만 17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시설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곳은 무려 339만418명이 입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이었다. 2015년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4억7180여만원, 일반운영비 22억2990여만원, 시설유지비 95억2810여만원, 기타 14억6840여만원 등으로 모두 156억98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입장수입 46억9160여만원, 보조 및 지원 10억7080여만원, 그 외 수입 16억3150여만원 등 수익은 73억

9400여만원에 불과했다. 83억여원 적자다. 다른 시설에 비해 입장수입은 월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신규 수입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순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300억4000만원짜리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역시 적자다. 지난해 55만3922명이 찾은 우드랜드는 결산 결과 12억4900여만원을 벌었지만 13억1200여만원을 썼다. 적자 규모는 작지만, 투자액과 방문객 수를 감안할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 '고비용' 36개 시설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무료입장이었다. 각 시·군은 지역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음식점, 숙박시설 등으로의 유입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료로 하기에 시설 내 콘텐츠가 미흡한데다 입장실적을 우려한 교육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진도의 경우 2006년 이후 개관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사업비 70억원)', '해양에너지공원(80억원)', '아리랑마을체험관(21억원)', '무형문화재전수관(52억원)' 등 4개 시설은 입장료가 없어 운영비 5억2539만8000원을 군이 부담했다.

지난 10년간 관광·문화시설에 국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곳은 순천시로 905억9600만원을 집행했으며, 장흥(628억2425만1000원), 해남(589억7300만원), 완도(512억4400만원), 영광(449억1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시·군 관광·문화시설의 적자가 쌓여가면서 신규 예산 및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방문객들의 기호, 추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콘텐츠 부실, 입장객 감소, 적자 증가 등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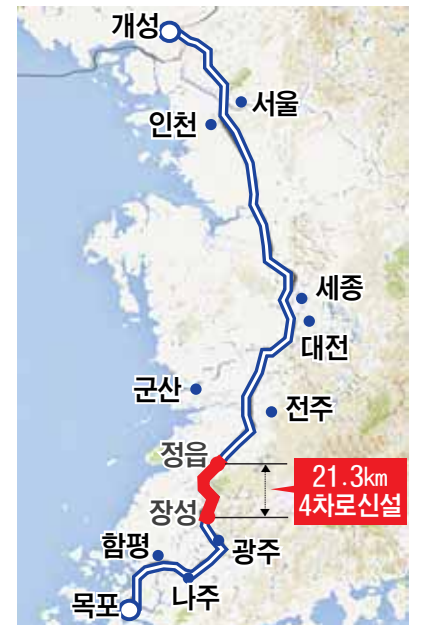
21억원짜리 고흥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의 지난해 입장객은 2081명, 68억원을 들인 보성 '판소리성지'의 지난해 입장객은 1880명에 불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도1호선 전구간 4차로 개통 4시간 반 거리 45년만에 완공

장성~정읍 21.3km 구간
운행시간 25분·5.1km 단축

■ 국도1호선 4차로 완공



국도 1호선 구간 중 유일한 2차로 구간이었던 전남 장성~전북 정읍 21.3km 구간이 마지막으로 4차로로 확장되면서 국도 1호선 남한노선 전구간이 4차로 이상으로 시원하게 뚫리게 됐다. 1971년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도 1호선으로 정해진지 약 45년만이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청장 하대성)에 따르면 전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 정읍~원덕1.2공구 21.3km 구간이 착공 10여년만에 신설 개통된다고 4일 밝혔다.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되는 이 노선은 기존 26.4km 구간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노선의 개통으로 이 구간의 운행시간은 25분(41분→16분), 운행거리도 5.1km(26.4km→21.3km)나 단축돼 내장산과 백양사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이로써 전남 목포부터 경기 파주 판문점까지 국도1호선 남한지역 전 노선(목포~광주~전주~논산~천안~수원~서울~파주) 약 500km가 4차로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도1호선 목포~파주간 남한노선 중 2차로였던 목포~나주~광주~장성~전주(익산청 관할 구역)에서

는 1977년 광주~나주 구간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나주~목포(1981~1985년), 전주~삼례(1989~1992년), 2005~2008년에는 광주~장성, 2005년부터 올해 정읍~원덕1.2공구까지 40년 가까이 4차로 확장공사를 이어왔다.

하대성 익산국도청장은 "장성~정읍간 4차로 확장으로 주변 내장산과 백양사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국도 1호선 모든 구간이 4차로 이상으로 연결되는 대업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해 중 불법조업 근절...오늘 광주서 한·중 어업협력회의

정부, 대형 인공어초 80개 설치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5일 광주에서 열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9차 회의를 5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열고 4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배종민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천승평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

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중국어선들이 진입해 우리 민중 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 80여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결정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인공어초는 일반 어초에 비해 크기는 2~8배에 무게도 30t이상 나가는 등 저인망식 그물이 쉽게 걸릴 수 있도록 제작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한전, 진월동 변전소터에 아파트 ▶ 6면
- 광주자동차밸리-뿌리산업 육성 ▶ 18면
- KIA 김주찬 나눔 올스타 선정 ▶ 20면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품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통처: 헤라 화장품점 또는 헤라 대리점 문의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료 포함) www.hera.co.kr